

푸른 유리구슬 소리

조나현

서울대학교미술관 학예연구사

태양이 지고 대지가 바다에 가라앉는다. 하늘에서 빛나던 별들도 사라진다, 불꽃이 만물의 생명수인 세계수를 집어삼키니 불길기 타올라 하늘까지 치솟는구나.

『예언녀의 계시』에 묘사된 세상의 종말¹⁾

전염병은 우리가 익숙하고 소중한 가치라고 여겨졌던 것들과 완전히 대척되는 지점에서 우리의 삶과 철학, 가치 기준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였다. 글로벌과 교류, 개방 등 세계와 타인을 향해 열려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시대정신이면서 발전의 모습이었다면, 전 세계를 휩쓴 전염병은 우리가 근 100여 년 동안 추구해 온 가치를 무참히 전복시켰다. 경계와 폐쇄가 자신과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되었으며, 새로움을 추구하고 반기를 드는 것은 타인을 공포와 위험 속에 몰아넣는 불온한 생각으로 변해버렸다. 한순간 변해버린 시대의 정신은 인간 중심주의로 인한 환경파괴가 가져온 현상이다. 이 당연한 낯선 세계에서 미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이번 전시는 우리가 시급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위기에 도전하고 신음하며 극복하고 좌절하는 것이 역사의 과정이라면,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단연 환경 오염이다. 지구의 온도가 단지 0.5°C 오르는 것만으로도 식량부족 문제를 초래하고, 사회불안, 세계 평화, 인류 생존의 문제까지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위기가 닥쳤을 때 국가 간 수출입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좇으며 이성은 쉽게 마비된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마스크 파동에서 배웠다.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쉽게 한정된 자원을 나누어 쓰지 않는다.

‘기록적인 폭염’, ‘관측 이래 가장 긴 장마’, ‘역대급 태풍’, ‘역대 가장 따뜻한 겨울’, ‘이례적인 흑한과 폭설’. 이는 계절이 바뀌며 계속 등장하는 단어들이다. 이 단어들이 무감각해질 정도로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익숙해졌다. 기후학자들이 예견한 가까운 미래의 모습은 『예언녀의 계시』에 묘사된 세상의 종말보다 끔찍하다. 그 어떤 전쟁보다 참혹하고 그 어떤 재앙보다 두려운 미래의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 행동하라고 말한다. 단순히 온난화가 가속되고, 더운 여름을 맞이하며, 태풍이 잦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 이후 나타날 우리 인류의 생존에 대한

문제이다. 시리아 난민은 2010년 러시아에서 발생한 가뭄의 결과이다. 이 난데없는 연결은 결국 환경의 문제를 단지 기후의 문제, 오염의 문제로 한정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 연쇄 고리는 기후변화로 인해 러시아에 발생한 가뭄에서 시작한다. 가뭄은 러시아의 밀가루 가격을 폭등하게 했고, 러시아산 밀가루를 수입하던 시리아에서는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시리아의 국가시스템이 붕괴하여 내전이 발생하고, 난민 문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식량부족과 기후난민으로 생기는 국가 간 약탈의 공포와 참극은 어쩌면 곧 닥칠 미래의 모습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낙관적 미래를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비극이다.

2000년 파울 크뤼첸(Paul Crutzen)이 제안한 인류세 개념은 지구에 대한 인간의 영향력에 주목한 단어이다. 인간의 행위가 우리의 토대에 영향을 미치고, 변형된 지구환경은 다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던 관습이 지금의 전 지구적 재앙을 가져왔다는 주장의 가운데에는 ‘신유물론’이 존재한다. 신유물론의 핵심은 인간 이외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인간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많은 시도가 등장하고 있다. 근대를 지배했던 인간 중심적이고 기계론적 자연관은 자연도 기계의 부품처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자연, 동물 등 인간 이외의 존재는 인간의 안위를 위한 부수적인 존재라는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그렇기에 사고의 결정 과정에서 가장 우위를 점하는 것은 항상 인간이 되며, 인간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문제들을 처리하였다. 가축에 전염병이 돌면 동물권을 무시한 채 몰살시켜 버린다면, 인간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건축물을 세우면서 자연 파괴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런 현상에 반해,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는 인간이 아닌 모든 것들도 인간과 같은 개별 주체, 즉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자로 역할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물, 기술 등 인간 외적인 것들에 지위를 격상시키고 지구를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요구한다. 반면 제이슨 W. 무어(Jason W. Moore)는 인류세보다는 자본세를 주장한다. 인류세가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을 인류 전체로 가져가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신 자본주의 패러다임에 책임을 돌린다. 경제적 효용성이 중요한 자본주의에서, 한정된 자원에 대한 제약이나 통제 없이 과잉

1) 안드리 스나이르 마그나손, 『시간과 물에 대하여』, 노승영 옮김, 북하우스, 2019, p. 19.

채굴된 결과가 기후변화와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고 보는 인식이다.²⁾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던 값싼 자연(cheap nature)은 종말에 이르렀다고 말한다.³⁾

이러한 다양한 견해와 태도를 보이는 환경에 대해 예술가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생태적 위기를 발언해왔다. 때로는 인간의 잔인하고 오만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땅의 기운과 자연의 위대함을 드러내기도 하며,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주장하기도 하고, 자본이 결탁한 자연환경에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바이러스에 침몰당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지알원 작가는 저항과 반항, 자유를 대변하는 그래피티(Graffiti)로 표현한다. 도시의 이면을 걷고 붉은 이미지로 표현해온 작가는 고담시티처럼 우리가 애써 감춰둔 굶아버린 우리의 진짜 얼굴을 들이민다. <2020>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우리가 겪은 지난해의 모습을 보여준다. 2차 세계대전에서 방독 마스크를 쓰고 있는 독일군 이미지를 빌려온 이 그림이 2020년의 모습과 겹쳐지며, 인간에 의한 재앙의 날들을 묘사한다. 일 년 내내 벗을 수 없었던 마스크,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 타인을 믿지 못하는 배척의 마음, 함께 할 수 없는 고독감, 감염자에 대한 원망과 비난의 시선, 이 모든 것이 방독면 속에 감춰진 표정임을 짐작할 수 있다. 배척하고 구분 짓고 외면하는 것으로 1년을 버텼다면, 앞으로 계속될 환경 오염과 기후 재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작품은 심각하게 질문한다. 갱지에 흑백으로 그려진 이미지들은 호희 신문 속 전쟁 속보라도 알리듯, 긴장감과 위급함,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촉구한다.

김신혜 작가는 상품 라벨 속 산수화를 재현하여 도시에서 우리가 자연을 소비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그가 그려낸 산수화는 거대하고 장엄하여 범접할 수 없는 송고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작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공산품 라벨 속 자연의 이미지를 한지 위에 그리는데, 이 산수가 대변하고 있는 것은 자연처럼 맑은 생수, 순수한 핸드크림, 깨끗한 술 등이다. 그러나 산수보다 거대하게 그려진 상품 이미지는 마치 소비 물질이 자연을 잠식해버린 듯한 인상을 준다. 상품 라벨에서 확장된 산수화는 새삼스레 우리가 꽤 많은 자연의 이미지를 일상에서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자연의 냄새와 촉감, 소리는 사라진 채 플라스틱의 매끄러움만

남아있는 정돈된 상품 속 자연은 차갑고 밋밋하다. 이 상품 속 자연의 이미지가 담고 있는 감각은 정제되고 미끈거리 실체 자연의 감촉을 덮어버린다. 일회용품에 담긴 웅장한 산맥은 오히려 애처롭게 보이고, 대지의 광활함을 잇은 채 작은 패키지 속 자연을 소비하는 우리의 모습 역시 소박하면서도 안쓰럽다. 그러나 작가는 패키지 속 산수를 청아하고 소박하게 화선지에 펼쳐놓아 산수를 대하는 새로운 정서를 환기한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주변 환경에 관심을 두고 작업하는 송수영 작가는 일상 사물 위에 미세하게 조각한다. 소시지를 보면서 끔찍한 돼지의 도축 과정을 생각할 수 없듯이, 작가가 조각의 대상으로 삼은 이수시개에서 푸르른 나무를, 면봉에서 부드러운 목화를, 일회용 나무젓가락에서 울창한 숲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작가는 하찮아 보이는 우리 일상의 사물/상품이 살아있을 적 실로 자연의 원대한 역사 속에서 숨 쉬었을 장면을 펼쳐낸다. 나무젓가락 끝에는 풀이 묘사되어 있고 배드민턴 공에는 새의 깃털이 달려있다. 이러한 작가의 작고 섬세한 조각은 불현듯 사물의 원래 모습을 연상하게 하여 섬뜩함을 불러온다. 수십 장의 숲이 그려진 연필화는 한 개의 개별 연필의 역사를 추적한다. 작가는 해당 연필에 쓰인 목재의 원산지과 수종을 조사한 후, 그 연필이 살았던 지역의 모습을 A4용지에 담아낸다. 연필이 되어버린 나무가 살았던 숲속의 청아함과 따스함을 하찮지만 하찮지 않은 하나의 연필로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주변의 흔한 사물이 간직한 고유의 역사를 드러내어 자연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도록 이끈다.

임노식 작가 역시 주변을 면밀히 관찰하고 사색한 바를 그린다. 임노식 작가에게는 그가 머물러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큰 의미를 지닌다. 그가 그려온 담담한 풍경들 속에서 우리는 되려 작가의 모습을 구체화한다. 작가가 묘사한 모래산은 고향 여주에 새로이 생겨난 모래더미를 그린 것이다. 희뿌옇게 드러나 있는 모래산은 아련한 듯 서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 모래산이 간직한 역사는 자본과 정치적 이해관계, 투쟁과 생사가 얽히고설켜 녹아있다. 이 모래산은 여주 사대강 정비 사업 후 버려진 준설토이다. 적치 비용으로만 수십억이 들어간 준설토는 수익성의 문제로 팔리지도 못했으며, 대안으로 나온 썰매장 건설 역시 굵은 모래입자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다.

2) 장-바티스트 말레, 「종말은 없다! 자본주의의 붕괴가 있을 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9년 8월호, 한국어판 제131호, p.5.

3) 도나 해러웨이, 「인류세, 자본세, 대농장세, 톨루세: 친족 만들기」, 문화과학 97호, p164.

산처럼 거대한 모습으로 쌓여 있는 모래 산더미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으면서도 진짜 산처럼 아득히 지역 풍광에 스며들어 씩씩하면서도 목가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식물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사유해온 김유정 작가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식물의 모습을 프레스코 기법의 낯선 이미지로 생산한다. 회갈색 화판을 굽어 재현한 식물은 생명력과 신선함 대신 답답하고 암울한 모습이다. 작가에게 식물은 인생에 대해 사유하는 기본 단위이다. 그가 묘사하는 식물은 대지나 숲에서 자라나는 식물이 아니다. 식물원에 옮겨 심어지고, 콘크리트 사이에서 자라며, 화분 안에서 길러지고, 도시의 부산물과 뒤엉켜 있는 인간의 힘이 개입된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이색 식물들이 한곳에 머물며, 적절한 온습도를 유지하고 완벽한 보호를 받는 인공화된 자연인 식물원은 그 자체로 폭력적이며 야만적이다. 인위적으로 조성된 대단원 숲에서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는 현대의 삶에 의문을 제기하는 작가는 식물 그 자체의 생명력과 자생력을 돌아보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식물을 다시 바라보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안중현 작가의 사진에는 냄새가 있다. 쿨쿨하면서도 서늘하고 메케한 냄새를 거대한 그의 사진 앞에 서면 느낄 수 있다. 불에 타고 난 후 검게 그을린 나무들에서는 코를 찌르는 냄새와 부스러지고 서걱거리는 질감이 느껴져 두려움이 몰려온다. 타다 남은 재가 사방에 널려있고 건물을 지탱하던 철근이 맥락 없이 구부러져 있는 숲과 도시의 사진 앞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공포의 감정이 솟아오른다. 안중현 작가가 관심을 보여왔던 주제는 인간 문명과 자연의 관계이다. 몇 주 동안이나 진압되지 않는 산불을 보며 인간의 기술력이 자연의 힘 앞에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불에 대한 작업을 시작한 작가는 도시가 불타고 난 후의 흔적과 산불의 흔적 속 '재'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사유를 유도한다. 몇 개월을 끄지 못해 지속하는 산불이 인류세의 징후인 이유는 이것이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현장의 날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어 우리에게 낯섬을 대면하게 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오랜 생각의 틀을 재고해보도록 이끈다.

일인 출판사 '생물과 문화'를 운영하는 이소요 작가는, 출판사의 이름처럼 인간의 문화와 역사 안에서 생물이 어떻게 흡수되고

변화해왔는지를 예술로 보여준다. 누군가의 책상에 무심히 놓여있을 것만 같은 노랑고 붉은 로켓 모양의 선인장은 자본과 문화, 정치가 얽힌 고된 역사를 품고 있다. 이 선인장을 대변하는 홍보 문구는 "세계 최고의 선인장(The World's Best Cactus)"이다. 작가는 이 문구를 통해 '무엇이 최고의 선인장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 문구는 사실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해 접붙여진 한국산 관상용 선인장에 붙은 이름이다. 화려한 이 관상용 선인장(비모란)의 원종은 놀랍게도 현재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생하는 목단원이다. 거무튀튀하면서 자줏빛을 품은 볼품없는 품종인 목단원은 수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느리게 자란다. 얼핏 쓸모없어 보이는 이 선인장이 인위적인 교배와 육종을 통해 '세계 최고의 선인장'이 된 데에는 인간의 욕망이 숨어있다. 인간의 자본과 관습, 문화에 따라 변화된 선인장의 모습을 통해, 인류세 시대에 비인간 생명체와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된다.

강주리 작가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는 '자연'에는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 있다. 이 변이된 자연은 유전자 조작으로 변형된 생명체, 멸종 위기의 동·식물, 돌연변이 등으로, 실상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생태계 일부이다. 동물 속 종유석과 같은 이 기괴한 형상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놀랍도록 많고 기이한 생명체들이 매달려있다. 다리가 여섯 개인 개, 눈이 하나인 원숭이, 콧구멍이 세 개인 젓소, 머리가 두 개인 뱀, 상자에 넣기 편하게 유전자 조작된 네모난 오이, 선물용으로 디자인된 하트 모양의 굴. 듣기만 해도 끔찍한 생명체들이 엉켜있는 작품의 제목은 불규칙하여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상태를 말하는 <카오스>이다. 기이한 생명체들이 서로 얽히고설켜 있는 모습은 지구 종말의 날을 보여주는 듯하며, 혼돈의 생태계를 보여주어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숨겨온 현장을 들춰낸다. 종이에 펜으로 그려진 이미지들은 마치 생물 도감처럼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 사실성을 더해 섬뜩함을 배가시키고, '복사'와 '붙여넣기' 작업으로 무한 증식하는 작품 제작 방식은 우리 생태계의 변화가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하다.

허윤희 작가가 기후 위기와 멸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게 된 출발점으로 삼은 작품은 <나뭇잎 일기>이다. 작업실 주변을 산책하며 주운 나뭇잎을 매일매일 그리며 그날 만났던 사람과

책을 통해 만난 사람 그리고 문득 떠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담았다. 이 소소한 하루의 일과는 작가가 자연의 변화에 민감하게 만들었고, 자연의 고통을 몸으로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일상에서 빙하까지 이어진 이야기에는 작가의 간절한 호소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목탄으로 그린 녹아드는 빙하 이미지는 우리의 도시 속 삶과 영겨져 있어, 이 불행한 일들이 나의 삶과 내 터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한다. 작가는 빙하 이미지를 벽화로 그리고 지우는 퍼포먼스를 통해 사라져 가는 빙하를 애도한다. 벽화의 이미지를 손으로 문지르는 행위는 빙하의 죽음을 슬퍼하며 어루만지는 손길처럼 다가온다. 문지르고 다시 그리는 수고스러움을 뒤로한 채 매몰차게 지워버린 빙하는 흔적만 남아 우리로 하여금 사라져가는 빙하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작가는 실제 퍼포먼스에서 애써 그려놓은 빙하를 지우기 전 멸종된 동물들을 하나하나 호명하는데, 이 사라져버린 동물들의 이름은 인간의 잔인함과 영향력을 다시 확인시켜주며 주체할 수 없는 먹먹함을 가져온다.

한성필 작가의 작품 앞에 서면 거대하게 펼쳐진 대자연의 장관에 압도당한다. 형용할 수 없이 파랄고 하얀 색감이 화면을 덮고 있다. 이 믿기지 않는 자연의 모습은 작가가 극지방에 가서 촬영한 사진이다. 자연의 생생함을 그대로 담고 있는 황홀한 사진들은 실상, 기후 위기와 산업화가 낳은 재앙이 시작된 모습으로, 인간의 이기심과 자본이 뒤섞인 현장이다. 영겁의 시간을 함축하고 있는 거대한 빙하의 모습은 그 숭고한 형상으로 인해, 녹아내린 빙하의 모습과 중첩되며 슬픔을 더한다. 지구의 역사를 품고 있는 빙하는 그 역사를 지우고 사라져 간다. 작가는 또한 극지방에서 일어난 인간 산업 활동의 부산물을 사진에 담는다. 폐탄광의 모습을 담은 사진은 동화같이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이질적으로 대비되며 인간의 오만을 드러내고, 고래를 잡아 올리던 웅장한 장비와 고래기름을 보관하던 육중한 기름통은 포경산업의 잔재를 보여주며 인간의 끝없는 잔혹함을 드러낸다. 우리가 마침내 맞닥뜨릴 재앙의 순간 전, 자연의 축복을 만끽하라는 듯 재난을 품은 사진들은 역설적으로 평화롭고 존엄하다.

구은정 작가는 우리 주변의 피고 지는 자연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해왔다. 별자리의 위치를 음으로 변환시켜 만든 노랫소리나, 봄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저 버린 벚꽃의

기록, 그날그날의 하늘빛을 새겨놓은 천 조각은 자연의 모습을 오감으로 느끼게 한다. <뜻밖의 궤도>는 작가가 베트남의 무이네라는 사막지대를 여행하며 느꼈던 감정과 기억을 과거의 경험들과 연결 지어 형상화한 작품이다. 작품의 제목에서 연상되듯, 우연한 자연과의 조우는 작가의 옛 기억을 소환하고, 이는 다시 현재의 모습과 중첩되며 궤도를 만들어낸다. 작품을 통해 우리는 자연과의 교감으로 과거와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잇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연 속에서 느낀 개인의 감정과 기억을, 서로 공명하여 울려 퍼지는 소리로 은유하는 퍼포먼스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보내오는 힘과 영향력, 그리고 파급력을 느끼게 해준다. 이 신비롭고 몽환적인 사운드는 우리 주변의 존재를 다시금 상기시킨다.

나점수 작가의 조각은 조용하면서도 긴장감 있고, 나른하면서도 힘이 느껴진다. 그가 조각해 놓은 공간은 자연을 닮아있다. 흙과 나무로 형상을 이뤄낸 조각들은 자연의 형상을 묘사하면서도 세계와 우주 그 자체이다. 나무는 그에게 특별한 재료이다. 세계를 그리고 자연을 대변하고 상징하는 재료가기 때문이다. 그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본 상형문자 休(휴)는 나무(畝) 옆에 서 있는 인간을 본뜨면서, 인간의 가장 편안한 상태를 자연과의 교감으로 묘사하고 있다. 수직과 수평의 축으로 공간을 가르고 드러내는 그의 작품은 우리가 잊고 지낸 자연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한다. 휴으로 쌓아 올린 축대는 쓰러질 듯 꺾꽂고, 에너지를 한껏 머금으면서도 아슬한 모습을 보이며, 우리를 거대한 자연 앞에 선 초라한 인간으로 돌이켜 철학적 사유를 이끈다. 그의 작품을 대면하고 있다면 마치 여행을 온 듯 새롭게 자연을,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수도(修道)의 과정처럼 보이는 그의 작품은 보는 사람에게 특유의 고요함으로 말을 걸고, 생명의 경이로움과 안도를 느끼게 한다. 오랜 시간의 흐름을 담고 있는 조각들은 수억 년을 품은 자연의 역사를 드러내어 우리를 삶과 죽음 그리고 내면 깊숙한 자아와 무한한 우주로 옮긴다.

나가며

2020년 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홍수로 도심이 물에 잠겼고, 5월 동유럽은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발생했으며, 6월에서 8월까지 한국에서는 54일 동안 장마가 지속되었다, 6월 방글라데시에서는 폭우가 이어져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고, 중국에서는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간 비가 이어졌다. 7월 이탈리아 북부 프레세나 빙하에서는 조류로 인한 분홍색 빙하가 관찰되었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100여 건의 산불이 8월에 시작하여 9월까지 이어졌다. 11월에 중남미에선 역대 최대의 허리케인이 발생했고,⁴⁾ 2021년 2월 인도에서는 히말라야산맥의 빙하가 녹으며 생긴 홍수로 2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본토의 4분의 3이 눈에 뒤덮이는 폭설이 내렸다.⁵⁾ 2021년 3월 우리는 가장 이른 벚꽃 개화를 맞이했고 4월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다.⁶⁾ 그리고 2020년 내내 물러설 줄 몰랐던 바이러스는 2021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1.5도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의 마지노선이다. 조천호(2019)는 인류 문명과 자연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가르는 문턱 값이 바로 1.5도라고 한다.⁷⁾ 그렇지 않으면, 지구가 회복할 수 있는 탄성력을 잃어버려 마치 고장 난 스프링처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끔찍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⁸⁾ 기로에서 있는 우리는, 숭고하고 경이로운 자연을 다시 소소하게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평화를 바란다.

환경 오염은 관망하고 관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지금 가장 당면한, 그리고 시급한 생존의 문제이다. 눈에 띄게 변화하는 지구의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 행동하라고 말한다. 이제껏 우리를 끌고 온 지배이념을 벗어버리고, 모두가 공존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한다. 수많은 이론가, 환경전문가, 사회학자들은 인간주의적 이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 방식과 범위가 다를지언정, 인간만이 독보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점, 지구상 모두가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거대하여 꿈쩍하지 않을 것 같던 사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코로나19 사태로 직면하였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간 중심적 시각을 완전히 반대로 바라보게 하는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만이 인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일지 모른다.

전시의 제목에 쓰인 '푸른 유리구슬'은 달로 향하던 아폴로 17호 승무원이 사진으로 찍은 맑고 투명하고 눈부신 지구의 모습이다. 이제는 이 푸른 유리구슬이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을 지나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을 맞을 수 있기를 바라는 작은 마음으로, 조바심을 내어, 변화를 위한 작은 행동을 바라본다.

4) 김형미, "어쩌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울지 모릅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경향신문, 2020.12.31.

5) 채인택, "미쳐버린 전세계 기후...히말라야 빙하 홍수로 200명 몰살", 중앙일보, 2021.02.20.

6) 박상욱, "[박상욱의 기후 1.5] 더운 4월, 추운 5월...또 다시 찾아온 이상(異常)의 일상(日常)화", JTBC, 2021.05.10.

7) 조천호, 『파란하늘 빨간지구』, 동아아시아, 2019, p. 131.

8) 위의 책, p. 127.